

## 한국 한방의료관광에 대한 중국 관광객 인식도 조사연구

이정만<sup>1,3</sup>, 문경원<sup>2</sup>, 이정열<sup>3</sup>, 김응석<sup>3</sup>, 손창규<sup>3,4</sup>

<sup>1</sup>인하대학교 문화경영학과, <sup>2</sup>대전시 대전발전연구원

<sup>3</sup>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 의료관광 추진위원회, <sup>4</sup>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간장면역학교실

---

### Survey of Awareness of Chinese Tourists on Korean Medical Tourism

Jeong-man Lee<sup>1,3</sup>, Kyung-won Moon<sup>2</sup>, Jeong-yeol Lee<sup>3</sup>, Eung-suk Kim<sup>3</sup>, Chang-gue Son<sup>3,4</sup>

<sup>1</sup>Culture Management, In-Ha University, <sup>2</sup>Daejeon Development Institute

<sup>3</sup>Korea Traditional-Medical Tourism Promotion Committee of Dae-Jeon Oriental Hospital

<sup>4</sup>Liver-Immune Research Center of Oriental medicine College, Dae-Jeon University

#### ABSTRACT

**Objectives :** This study aimed to obtain general information for the design of a medical tourism plan toward Chinese using Korean medicine (KM).

**Methods :** A questionnaire was asked of Chinese tourists regarding of Korea traditional medical tourism. 148 valid responses were obtained and their awareness of KM, and preferred subject and decision factors for their participation in Korea traditional medical tourism were analyzed using SPSS version 12.0.

**Results :** 72% of respondents showed over a moderate degree of interest in medical tourism of KM. The most preferred subject was skin aesthetics, followed by medical check-ups and rehabilitation. Medical skill level, communication, and medical cost were indicated as the important factors for participants' decisions about KM-based medical tourism.

**Conclusions :** Medical tourism could be a potential avenue for development by the KM-based Korean medical industry. Cosmetic-associated medical services are recommended, and enhanced public relations about KM-medical skill levels are strongly suggested for Chinese tourists.

**Key words :** medical tourism, Chinese tourists, Korea medical tourism

---

### 1. 서 론

최근 들어 국내외적으로 의료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의료서비스와 문화관광이 결합된 융합적 형태의 의료관광산업이 미래의 주요한 선도산업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6년에 약 600억 불이었던 의료관광사업의 시장규모가

2012년도에는 1,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각국은 이에 대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sup>1</sup>.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일찍이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 등이 기존의 관광자원과 우수한 의료 인프라를 이용하여 의료관광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성공하였는데, 싱가포르의 경우 2012년도에 100만 명의 외국인환자와 30억 달러의 수입목표를 세우고 있다<sup>2</sup>.

해외환자유치는 부가가치 유발계수 등 경제효과가 타 산업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정부투자정책을

· 교신저자: 손창규 대전시 중구 대흥동 22-5번지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간장면역학교실  
TEL: 042-229-6807 FAX: 042-254-3403  
E-mail: ckson@dju.ac.kr

우선적으로 결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sup>3</sup>. 한국은 비교적 늦게 의료관광시장에 뛰어 들었으나, 우수한 의료기술 및 비용경쟁력으로 그 잠재성을 높이 평가받고 있다. 한국정부는 2009년 글로벌헬스케어 17대 신성장동력 산업의 하나로 지정하여 의료관광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관련된 의료법의 개정 및 해외환자 유치에 위한 시설 및 인프라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sup>4</sup>. 정부는 2010년에 이어 2011년에도 지역선도 사업선정을 통하여 전국적인 의료관광의 특성화를 유도하고 있고, 지자체들도 경쟁적으로 지역의 특색 있는 의료관광 특성화단지나 의료관광 상품개발에 나서고 있다<sup>5</sup>.

한편, 한국의 한의학은 오랜 전통적인 독특한 의학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우수한 인력자원에 근거한 과학적으로 세련된 의료기술을 발전 시킴으로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최근 한류의 확장과 더불어 한의학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이 점차 많아지고 한방지료를 목적으로 관광객들이 늘고 있다<sup>6</sup>. 2010년 일본관광객을 대상으로 한국의료관광 선호도를 분석한 하나의 연구에서는 스킨케어와 더불어 한방치료 및 건강검진이 가장 선호하는 의료상품이었다<sup>7</sup>. 2011년 미국인 대상의 한국의료관광조사에서 선호 의료분야는 치과(33.5%), 건강검진(24.2%), 한방치료(19.2%)순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sup>8</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방의료관광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매우 미약하였고, 한의계 자체적으로도 한방의료관광 상품개발에 필요한 대상국가의 관광객의 수요특성과 같은 연구가 미진하였다.

한편, 중국인이 해외여행의 중요한 소비국으로 인식되는 시점에서 최근 한류열풍과 함께 중국 관광객의 한국의 방문이 급격히 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의학과 중의학의 유사성으로 인하여 중국인의 한의학에 대한 관심은 매우 적으로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인이 일본인보다 한국의료관광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다는 연구보고도 있다<sup>9</sup>.

이에 본 연구는 한국한방의료관광의 가장 큰 잠재고객이 될 중국 관광객의 한방의료 인지도 및 한방의료관광 참여의사, 의료관광 관심분야, 한방의료관광 결정시의 고려사항 등을 조사하여 향후 중국인 대상의 한방의료관광 상품개발의 기초자료로 삼고자 한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2011년 8월~2011년 9월 사이 국내 여행사를 통해 한국을 방문하였다가 귀국을 위해 인천공항에 대기 중인 중국관광객에게 설문조사 하였다. 설문 방법은 중국어가 유창한 국내 관광가이드가 설문 취지를 설명하였고 설문지에 각자가 기입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180명의 설문지 답변 대상자 중에서 모든 설문 항목에 답변을 완성한 148명의 자료를 최종적으로 채택하였다. 설문지는 한국에서 유효하고 있는 중의학을 전공한 중국인의 검증을 받아서 완성하였다.

### 2. 조사항목 및 분석 방법

설문지에 요구된 질문 항목은 성별, 나이, 직업 등의 인구통계학적인 내용과 더불어 방문목적, 한국방문횟수, 한국체류기간, 한국체류기간 중 지출액수 등의 여행관련 질문들이 구성되었다. 또한 한국 호감도, 한국의 의료수준에 대한 인식도, 한방치료 인지도 및 한방의료관광 참여의향에 관련된 항목들로 구성되어졌다(Table 1). 한방의료관광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을 위해, 다음의 3가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한국호감도는 한방의료관광 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2: 한국의료수준인식도는 한방의료관광 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3: 한방치료인지도는 한방의료관광 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가설을 이용하여 SPSS 12.0 version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즉, '한국호감도', '한국의료수준인식도',

‘한방치료인지도’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종속변수로서 ‘한방의료관광 참여의도’를 정하여 이에 대한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가를 조사하였다.

Table 1. Major Questions and Choice Items in the Questionnaire.

1. Your level of interest in Korea (very high: high: middle: low: very low)
2. What do you think of the level of Korean medical system? (very high: high: middle: low: very low)
3. Are you aware of the Korean Oriental medicine? Ex, Acupuncture, Moxibustion, Herbal drug, etc. (very much: much: moderate: little: none)
4. Do you have interest in Oriental medicine tourism? (very much: much: moderate: little: none)
5. Circle all the subjects of oriental medical tourism that you are interested in. (medical check, gynecology, internal medicine, orthopedics, skin aesthetic, cancer treatment, rehabilitation, aftercare & relaxation)
6. Select two most important criteria when deciding for Korean oriental medical tourism. (information on medical services, quality of medical technology, communication, facility & environment of hospitals, travel distance, availability of Chinese food, kindness of staff, surroundings of the tourism area, medical cost, awareness of the region)

### III. 결 과

#### 1. 인구통계학 및 여행적 특성

본 통계의 대상자들은 여성(58.8%)이 남성(41.2%)보다 약간 많았고, 연령대에서는 40대(29.7%)와 30대(20.9%)가 많았다. 직업은 회사원(35.8%)이 가장 많았으며 학력은 전문대 이상이 60.8%를 차지했다. 59.0%의 답변자들이 월평균 가족소득은 2,000불 이하였다(Table 2). 방문목적의 대다수가 여행이었고 관광객의 평균 방문횟수는 1.1회로 다수가 처음 한국을 방문하였는데, 평균 체류일이 4.38일로 1인당 한국방문 중에 평균지출은 평균 1,098달러였다.

#### 2. 한국과 한방의료에 대한 인식 및 한방의료관광 관심도

중국 관광객들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부정적인 답변은 없었으며, 한국의 의료수준에 대해서는 높다고 답변한 경우(29.1%)보다는 매우 낮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이(54.7%) 훨씬 많았다. 한국의 한방 치료에 대한 인지도는 잘 안다고 답변한 경우가 8.8%인 반면 23.3%는 거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답하였다. 한방의료관광 참여에 대한 관심도는 29.7%가 매우 긍정적이었고, 53.4%는 중간정도의 관심을 가졌다(Fig. 1).

Table 2. Social-Demographic Characteristics.

Questions	Criteria	Frequency (n=148)	Proportion (%)
Sex	Man vs. Woman	61 vs. 97	41.2 vs. 58.8
Age (year)	≤ 19	21	14.2
	20 ~ 29	21	14.2
	30 ~ 39	31	20.9
	40 ~ 49	44	29.7
	50 ~ 59	9	6.1
	60 ~ 69	17	11.5
	70 ≤	5	3.4
Marital status	Single	36	24.3
	Married	109	73.6
	Others	3	2.0
Occupation	Specialized job	23	15.5
	Self employed	11	7.4
	Public servant	8	5.4
	employee	53	35.8
	Student	28	19.9
	Homemaker	13	8.8
	Others	12	8.1
Graduation	≤ High school	58	39.2
	College	88	59.5
	Graduate school	2	1.4
Monthly family income (USD)	≤ 2,000	85	59.0
	2,001 ~ 4,000	35	23.6
	4,001 ~ 6,000	13	8.8
	6,001 <	11	7.5
	Others	4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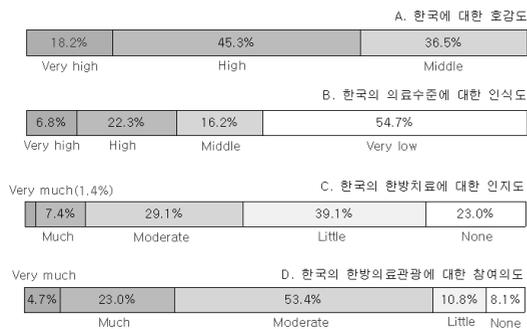


Fig. 1. Thought for Korea, medical level, KM and KM-based medical tourism.

### 3. 한방의료관광 선호과목

다중응답방법으로 한방의료관광의 선호과목을 조사하였다. 중국관광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분야는 피부미용(75.7%)이었고, 다음으로 건강검진(35.1%), 재활치료(24.3%), 암치료(16.2%), 요양휴식(16.2%)의 순이었다(Fig. 2). 피부미용에 관해서는 남자도(여자의 85.1%와 남자의 62.3%) 관심이 높았고, 연령대와는 상관없이(10대의 61.9%, 20대는 71.4%, 30대는 83.9%, 40대 79.5%, 50대 77.8%, 60대 70.6%, 70대 80.0%) 관심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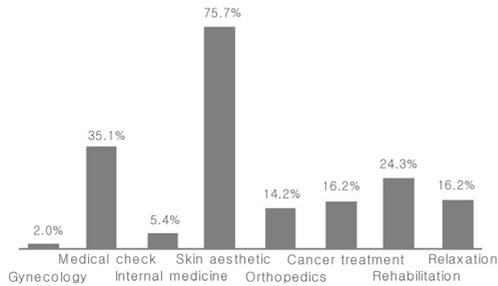


Fig. 2. The preferred subjects for KM-based medical tourism.

4. 한방의료관광 결정요인

다중응답방법으로 한방의료관광 참여결정시 고려하는 요소에 관한 설문을 수행하였다. 가장 중요한 결정요소로 의료기술 수준(66.9%)이 중요하다고 답하였다. 다음으로 원활한 의사소통(35.1%)과 의료비용(34.5%)을 꼽았고, 종사자의 친절함(20.3%)과 의료서비스의 자세한 정보(18.9%) 및 병원시설 환경(14.2%)이 그 뒤를 따랐다. 지역인지도(9.5%), 자국음식여부(7.4%), 주변관광인프라(4.7%) 및 이동거리(3.4%)는 상대적으로 낮은 고려 사항이었다 (Fig. 3). 의료기술에 대한 고려사항은 남녀(여자의 67.8%와 남자의 65.6%)나 연령 (10대의 57.1%, 20대 71.4%, 30대 64.5%, 40대 65.9%, 50대 88.9%, 60대 70.6%, 70대 60.0%)과는 크게 상관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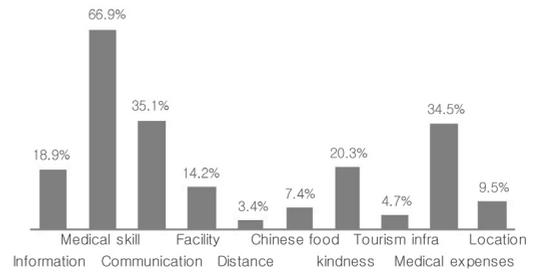


Fig. 3. Considering factors for KM-based medical tourism.

5. 한방의료관광 참여요인분석

한방의료관광 관련 설문조사 중 한국 호감도, 한국의 의료수준에 대한 인식도, 한방치료 인지도가 한방의료관광 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으로 추정한 결과, 3가지의 가설에 대한 p값이 <0.05로서, 위의 종속변수 모두가 '한방의료관광 참여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호감도'의 β값인 변수 기울기가 0.234로 가장 높아서 '한방의료관광 참여의도'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3). 본 연구의 Cronbach 알파계수는 0.705로 일반적 신뢰도가 인정되는 0.6 이상을 만족하고 있었다.

Table 3. Analysis for Influencing Factor for Medical Tourism.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s	SE	β	t	p	Tolerance limit
	Constant	.344	-	1.750	.082	
KM-based medical tourism	Interest in Korea	.096	.234	3.133	.002*	.921
	Awareness for Korean medical level	.046	.196	2.668	.009*	.950
	Awareness for KM	.074	.197	2.638	.009*	.921

IV. 고찰 및 결론

본 연구조사에서는 전 연령대의 관광객이 골고루 분포되어있었고 10대층과 다수의 학생이 포함

되어 있었다. 2,000불 이하의 월평균 가족소득을 가진 관광객이 59.0%이었는데, 한국 1회 방문 시 약 4.4일 동안 머물면서 1인당 평균 1,098달러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1년 문화체육관광

광부 '2010 외래관광객 실태조사'의 1,065 달러와 매우 유사하였다<sup>10</sup>. 대상자 전원이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중등도 이상이었는데, 아마도 이것은 이미 한국을 방문을 선택하여 온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일 것이라 추측된다.

중국을 해외로 나가는 관광객 수가 2010년 5,000만 명 돌파하여 2020년에는 1억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 된다<sup>11</sup>. 아시아 방문지는 홍콩-마카오-일본-한국 순으로 최근 한국방문이 늘어났는데, 근래의 한류열풍이 여기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sup>12</sup>. 이에 반하여 54.7%의 대상자들이 한국의 의료수준이 매우 낮을 것이라고 답변한 것은, 예능이나 스포츠 분야에 비하여 한국 의료수준에 대한 중국인들의 정보는 매우 낮은 것으로 여겨진다. 중의학은 기본적으로 한의학과 유사성이 많음에 따라서 중국인의 한방의료관광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국의 한방치료에 대하여 보통정도 이상의 인지를 하고 관광객은 약 38% 정도였다. 그러나 한방의료관광에 중등도 이상의 참여관심이 있는 대상자가 약 81%나 된다는 것은 의외의 결과였는데, 이는 아마도 한국인이 알고 있는 중의학과 한의학에 대한 비교인식보다는, 중국인은 중국에서의 의료와 한국에서의 의료라는 관점으로 여기는 것이라 추측이 든다. 다른 조사보고서에서도 중국인이 일본인보다 한국의료관광에 더욱 관심을 가진다는 발표가 있었다<sup>9</sup>. 이는 한국의 세련된 한의학의 수준을 중국에 홍보함으로써 얼마든지 중국인을 한국의 한방의료관광객의 주요 고객으로 삼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 성별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대다수가 '한방의료관광항목' 중 '피부미용'(75.7%)을 선택하였는데, 이는 중국에서 뷰티웰빙의 트렌드가 자리 잡고 있음을 의미하며 한방의료관광상품개발 과정에서 중요하게 검토하여야 하겠다. 최근에 한의계에서 침을 이용한 안면성형이나 주름개선을 시도하여 많은 효과를 보고하고 있는데<sup>13,14</sup>, 한방미

용 관광상품으로 성공할 여지가 크다고 하겠다. 또한 한방과 양방의학이 융합된 건강검진이나 재활 치료프로그램도 한방의료관광의 중요한 상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료관광상품의 개발에는 대상국가의 문화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하여야 하는데, 2009년 중국과 일본인 대상의 한국의료관광 참여의도 분석에서 각각 다른 결과를 도출하였다. 중국관광객의 경우 경증 및 건강미용에 대한 관심을 보였는데, 일본관광객의 경우 관광중심의 선택과 증증치료 및 건강미용으로 이원화 유형을 보이었다<sup>15</sup>.

중국관광객이 한방의료관광 참여결정시 가장 고려하는 요소로 '의료기술수준'을 꼽았는데, 따라서 한국의 고도로 훈련된 한방인적 자원과 세련되고 과학화된 한방치료기술을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 다음 중요한 요소로 '원활한 의사소통'과 '의료비용'을 뽑았듯이 중국인 의료관광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사회문화적 배려와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며, 합리적인 비용으로 가능한 의료관광 상품개발이 필요하겠다. 상대적으로 중국인들에게 '지역인지도', '자극식단여부', '이동거리' 등은 중요한 고려대상이 아니므로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 한방의료관광을 추진하여도 특별한 장애요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한방의료관광참여의도'에 관한 회귀분석에서 '한국호감도', '한국의료수준인식도', '한방치료인지도'는 참여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국의료수준'과 '한방치료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전략적으로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즉, 중국인 대상의 한방의료관광은 단순히 국내 의료시설 확장과 프로그램개발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한국방문객과 중국거주자를 대상으로 한국의료기술의 우수성과 한방치료의 선진성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국민수요조사에서 한방의료관광이 5조2천4백억의 생산파급효과를 가져온다고 하였다<sup>6</sup>. 인도나 태국과 같은 의료관광 선도국가들이 의료관광산업을

발달시키는 과정에서 자국의 전통의학의 이용한 전략을 사용하였듯이 한국도 한방의학을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sup>16</sup>. 한방의료를 단순히 의료기술이 아닌 한방의료의 특징을 살린 문화체험을 동반한 의료상품으로 공급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외국 현지에서의 조사가 아니라 한국 방문객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숫자가 충분치 않다는 중요한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방의료관광이 중국관광객을 비롯하여 외국인에게는 충분히 매력적인 상품으로 한국의료관광 산업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여겨진다. 다만, 한방의료에 대한 홍보는 단기적수행이 어렵고 수익창출이 바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한방의료기관에서 수행하기는 쉽지 않으며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감사의 글

본 연구는 대전발전연구원의 연구기금 및 보건사업진흥원 한방치료기술 사업 (B100045)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으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참고문헌

1. Devon M. Herrick. Medical Tourism: Global Competition in Health Care [internet]. NCPA Policy Report No. 304: 2007. [cited 2012 Feb 24]. Available from: <http://www.ncpa.org/pub/st/st304>.
2. Woo BS. Medical Tourism and the Future of Medical Practice in Korea. *J Korean Med Assoc* 2009;52:844-6.
3. Suh JK. Analysis on the economic effects of investment policy for invigoration of the attraction of foreign patients. *Korean industrial economic assoc* 2011;24:237-53.
4. 문화관광부. 한국의료관광총람. 서울: 문화관광부: 2011, p. 64-72.
5. 보건복지부. 지자체별 해외환자유치 특화상품 개발지원. In: 2011.04.08.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서울: 보건복지부: 2011, p. 1-4.
6. 유지운. 한방의료관광 활성화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9, p. 13-4, 112.
7. Yoon SY, Lee JG, Ryu SW. Influencing Factors to Preference of Medical Tourism Products of Japanese Tourists. *Korean Society of Hospital Administration* 2010;15:165-90.
8. Sohn SJ, Kang HS, Hwang M. An Exploratory Study on the Invigoration of Inbound Tour through a Survey on the Awareness of Korean Medical Tourism toward American Prospects Customers. *Tourism and leisure research* 2011; 23:511-31.
9. 김재석. 방한 중국관광객이 인식하는 의료관광 유형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제69차 한국관광학회 학술대회 및 연구논문 발표대회 2009:23-35.
10. 문화체육관광부. 2010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2011, p. 174.
11. World Tourism Organization. Tourism 2020 Vision. World Tourism Organization; 2010, p. 6.
12. 주영민. 한국관광산업의 업그레이드 전략 -미래 관광의 7대 트렌드와 방안. 삼성경제연구원: 2011, p. 12-4.
13. Lee EM, Park DS, Kim DH, Kim HW, Cho EH, Ahn MS, et al. A Literature Study and Recent Tendency on Oriental Correction of Deformities and Needle-embedding Therapy. *J Korean Acupuncture & Moxibustion Society* 2008;25:229-36.
14. Lee KS, Ko MK, Lee JH, Kim MJ, Hong KE. The Effect of Facial Embedding Therapy on Skin Elasticity and Moisture Content. *J Korean*

- Acupuncture & Moxibustion Society* 2011;28:11-9.
15. Yoo JY. A Cross-Cultural Study on Participation Intention to Medical Tourism among Korean, Chinese & Japanese Visitors in Korea. *Journal of Tourism Sciences* 2009;33(3):187-204.
16. Son CG, Kim ES, Lee JM, Lee JY, Moon KY. A study on the specialization model for Oriental medical tourism in the Daejeon metropolitan area. Daejeon development institute. 2011. 11-2.